황금돼지해 고객 사은
특별 우대 금리 시행
동양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결혼?
눈 높이가 하늘을 찌른다면!
062-226-3222

제17667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www.kwangju.co.kr 2007년 1월 30일 (음력 12월 12일) 화요일

기업, 중국에 다 뺏길 판

中 파격 혜택에 광주·전남서만 20곳 빠져나가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중국이 제공하는 특혜들이 최근 파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공장부지에 기반시설까지 닦아 수십년 무료임대를 해주는가 하면 입주할 기업의 수출입 편의를 위해 항만을 새로 만들어 준다. 기업들에겐 입이 딱 벌어질 유혹들이 아닐 수 없다.

중국 장쑤성(江蘇城) 옌청시(鹽城市)는 지난 2005년 둥펑위에다치처(東風悅達汽車)유한공사 2공장 건설을 위해 이회사에 45만평의 부지를 30년 동안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또 옌청시는 '10통(通) 1평(平)'이라는 자체 조례까지 만들어가며 전기·상하수도·통신 등 10가지 하드웨어를 개통해주고, 45만평에 달하는 부지 평탄화작업도 시가 맡았다.

여기에다 종합주행시험장 무상 신축지원과 함께 한국으로부터 자동차부품 수입이 용이하도록 공장에서 12㎞ 떨어진 해안에 항만을 새로 건설 중이다. 기아차와 중국이 합작투자한 위에다치처는 오는 10월 2공장 가동에 들어간다.

텐진(天津)시 역시 경제기술개발구(TEDA)에 설립된 9만4천여평의 금호타이어 텐진공장에 저렴한 임대료는 물론 소득세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 같은 중국의 '유혹'이 거세지면서 국내 제조업들의 탈출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5년부터 11년간 5천여개의 한국기업이 중국으로 이전, 한국기업의 중국 현지법인만 2만2천개(2005년말 기준)를 넘었다. 같은 기간동안 광주·전남지역에서도 20여개 업체가 국내를 탈출했다.

중국의 공세와 함께 한국내의 고임금, 인력난, 노사갈등 등을 이기다 못해 생산공장을 중국으로 이전하는 사례도 크게 늘고 있다.

3천여명의 중국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위에다치처의 근로자 1인당 한달평균 임금은 잔업·특근수당까지 포함해 중국돈 1천900위안(25만원)에 불과하다. 국내 기아차와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에 그친다.

또 중국 정부가 오는 2010년까지 모든 외국기업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공회(公會·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긴 하나, 국내 노조에 비하면 아직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위에다치처 관계자는 "최근 공회가 조직돼 3~5년내에 현 임금수준보다 2.5~3% 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中, 외국기업 유치 전략

공장부지 30년 무상임대
임금은 한국의 10분의 1
대체근무 등 탄력성 양호
소득세 등 세금감면 혜택
항만 등 부대시설 제공

광주 첨단산업단지내 A조명업체 대표는 "3년 전 중국내 값싼 노동력과 원자재를 활용하기 위해 광저우(廣州)에 생산공장을 설립했다"고 말했다.

제조업의 탈출에 따라 국내 일자리 21만개가 사라졌는가 하면 신설 제조업체 비중이 지난해 전체 창업회사 중 20% 아래로 떨어지는 등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중국으로 이전된 첨단기술이 국내로 반입되는 '부메랑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규제 완화와 함께 정책 불확실성을 적극 줄여주고 기업은 노사관계 안정, 지역사회는 반기업 정서 해소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제조업의 국내 탈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텐진=이종태기자 jtlee@

중국이 공장부지 무료 임대 등 파격적인 특혜를 제공하면서 우리나라 제조업체들을 빨아들이고 있다. 텐진(天津)시 경제기술개발구(TEDA)에 위치한 금호타이어 공장에서 근로자들이 타이어를 생산해내고 있다.

/중국 텐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돈벌이 내몰린 월드컵주차장

광주시 롯데마트 주차장 '독식' 허용…시민 분통

광주시가 대형 할인점을 유치하면서, 수익증대를 위해 월드컵경기장 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할인점 이용객들이 월드컵 경기장 주변 주차장을 독식하면서 체육시설 이용자와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극심한데다 향후 전국체전 등 대형 이벤트를 개최할 경우 주차 문제로 골머리를 앓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월드컵 경기장 수익증대를 위해 롯데마트 월드컵몰과 골프장 등을 유치하면서 이들 시설물을 경기장 부속시설로 규정, 기존 주차장을 함께 이용토록 했다.

시는 지난 2005년 교통영향심의에서 이들 수익시설 증축과 관련 롯데마트는 332면(지하)·골프장 203면만을 추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월드컵경기장의 총 주차면수는 월드컵경기장 2천248면(A주차장 269면, 초청인사 주차장 444대, B주차장 1천535대), 롯데마트 지하주차장 332면, 골프연습장 주차장이 203면 등 모두 2천851면이 됐다.

시는 또 경기장 주차장 가운데 B-2 주차장(217면)을 롯데마트에 임대해 모두 549면의 자체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했다. 경기장의 법정주차장이 509면인 것을 감안하면 롯데마트는 법적으로는 충분한 주차장을 확보한 셈이다.

하지만 광주시내 대부분의 대형 할인점이 고객 확보를 위해 법정 주차면의 3~4배를 확보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롯데의 자체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 18일 롯데마트 개장 이후 6일간 하루 평균 2만5천여명이 몰리면서, 쇼핑 차량이 경기장 내 2천851면의 공용 주차장은 물론 주변 통행로까지 잠식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롯데마트는 더욱이 홍보 전단에 '동시주차 3천700여대'라는 문구까지 삽입, 경기장 안팎의 주차장을 '전용'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월드컵경기장에서 펼쳐질 전국체전(10월) 등 대형이벤트 개최에도 비상이 걸렸다. 대형이벤트를 경기장에서 개최할 경우, 현재로선 롯데마트 이용차량의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광주시 관계자는 "20년 동안 연간 45억8천여만원의 임대료를 받은 뒤 시설을 기부채납 받기로 하고 할인점·골프장 등을 유치했다"며 "롯데마트와 전용 주차장 추가 등에 대해 논의 하겠다"고 말했다.

이모(52·회사원)씨는 "광주시가 눈 앞의 수익에만 급급해 체육공원이 갖춰야 할 쾌적함 등 시민휴식 여건 조성은 너무 무시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주정기자 jjnews@

與, 기간당원제 폐지

중앙위, 기초당원제 도입

열린우리당은 29일 오후 국회에서 중앙위원회의를 열어 기간당원제를 폐지하고 기초·공로당원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2월 14일로 예정된 전당대회 개최 가능성이 높아진 반면, 연쇄 탈당 움직임은 잠시 소강상태를 보일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우리당은 이날 재적위원 63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앙위원회의에서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재의결 필요성이 대두된 기간당원제 폐지와 기초당원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찬성 62표, 반대 1표로 처리했다.

중앙위는 이어 ▲평화개혁미래세력의 대통합 신당을 추진하고 ▲새로 선출되는 지도부에 대통합 신당의 방법, 절차와 관련한 포괄적 권한을 위임하며 ▲전당대회 이후 4개월간 중앙위 구성을 미루고 연석회의에 통합수임기구 권한을 위임한다는 전대준비위 합의 내용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우리당 중앙위가 이날 기간당원제 폐지의 당헌 개정안과 전대 의제 등을 원만하게 통과시킨 것은 잇단 탈당으로 당내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애초 기간당원제 사수를 주장했던 '참정연' 등 사수파 중앙위원들이 전략적 차원에서 기초당원제로의 당헌 개정에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임종인, 이계안, 최재천, 천정배 의원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연쇄탈당 움직임은 오는 30일 오전으로 예고된 염동연 의원의 탈당을 고비로 소강 상태를 보일 전망이다.

그러나 신당 강경파들은 전대 회의론을 제기하고 있고 김한길 원내대표와 강봉균 정책위의장 등의 탈당 가능성도 여전히 거론되고 있어 전대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임동욱기자 tuim@

제42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 접수중!
▶http://marathon.kwangju.co.kr ▶문의:(062)220-0541

남부대학교
http://www.nambu.ac.kr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nnam-tec.kr